전민일보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016면 기획

"지역 생산 먹거리 지역서 소비"… 군산 '푸드플랜' 활기

군산시 친환경 푸드플랜 박차

군산시의 지역 농민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전략이 호응을 얻고 있다. 먹거리전략(Food Strategy)은 일반적으로 푸드플랜(Food Plan)으로 혼용돼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먹거리전략은 건강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취약계층과 더불어 모든 시민에게 충분히 공급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먹거리는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생산해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선 7기 군산시 먹거리전략의 핵심은 공공급식시스템 구축, 안전기준 및 관리시스템 구축, 먹거리 거버넌스 및 유통체계 구축 등이다.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연계시켜 먹거리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 군산시 먹거리전략 성공 위한 전담부서 신설

농산물유통과를 먹거리정책과로 개편한 시는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지난 2019년 전국 9개 지자체 중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2019~2022년 1년)됐다. 또 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 운영 중이다. 군산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다양한 먹거리가 존재하고, 이러한 지역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는 업체들이 산재해 있다.

그동안에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회계 및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해 시민들이 먹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군산시 푸드플랜과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들이 안전성과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의 흐름을 지역 순환방식으로 정착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의 공공급식을 지역의 환경친화적인 먹거리로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관내 학교급식, 서울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은평구·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역아동센터 급식, 어린이집·유치원 친환경쌀 공급 등 기존 관계시장은 물론, 관내 공공기관 급식시장 개척 및 지역화를 위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또 입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사업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학생 및 시민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산대에서 사용하는 쌀을 친환경 군산쌀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으며, 시 소속 513개소 경로당도 군산쌀로 전환하는 등 지역먹거리 공급의 일등에서 범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시민들의 먹거리 접근성 확보 위한 로컬푸드 정책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옥산농협 로컬, 군산농협 로컬, (재)군산로컬푸드 직매장 등 3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추가로 건립된다.

이로써 관내 중소가족농은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게 되며, 시민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에는 군산로컬푸드의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시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로컬푸드직매장, 공공급식 등 로컬푸드 연계 농산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안전분석실을 운영해 안전출입관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 9월말 기준 88명의 농업인이 로컬푸드 출하 및 안전성 교육을 이수하고, 16여 농가가 인증을 신청해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 필요한 먹거리 위해 기획생산 추진

농산물의 품목별, 농가별 관리는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지역순환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 매일 중요하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농산물의 특성상 생산, 유통, 저장 등에서 시기별로 품목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가관리를 기반으로 기획적으로 생산하고 관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농산물, 지자체인증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체계적인 기획생산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작 중심의 군산농업을 소비처 및 시민들의 수요를 예측, 분석해 다양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생산돼 먹거리 지역화 70%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기획생산을 준비중에 있다. 안정적 생산을 위한 포장재량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팜 도입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과학적인 재배 방법 등을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 가공의 부가가치를 시민들에게 돌라주기 위한 식품 가공

농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농식품 창업과 지역 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농부의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농업인들은 그들이 생산한 지역 농산물을 딸기잼, 쑥조청, 무지 등 60여 개의 다양한 품목으로 직접 가공해 학교급식, 은평구·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공급함으로써 농외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9년 8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완전히는 농부의 식품공장 2공장이 가동되면 더 많은 농민이 지역 먹거리를 이용한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을 만들어 보다 제조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유일하게 제주의 원료인 보리에서 맥아제조, 지역특산 수제맥주 양조까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주용 맥아 2톤, 식혜용 엿기름 1톤을 상품화할 예정으로 2천톤 소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당보 구수천합고를 리모델링한 수제맥주체험관에 장은 4개의 매장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각 사업장마다 군산맥아를 이용한 보리수제맥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 푸드플랜 패키지지원사업 선정
이후 3년째 각종 사업 활발히 펼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추진
군산대 이용 '지역 친환경쌀'로 전환
관내공공기관급식시장 개척·지역화
로컬푸드 직매장 확산…인증제 시행
로컬푸드 연계 체계적 안전관리 추진
군산보리 수제맥주 체험관매장 개설
군산맥아 이용 로컬수제맥주제품 선배
지역 내 농업 RPC·DSC 통합 속도

▲ 기후 위기 시대의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산업 분야 강화

군산에서 쌀, 보리는 농업인과 농업의 자존감이다. 군산의 쌀, 보리는 전체농업소득의 90%이상을 차지한다. 시는 식량산업 경쟁력 도모를 위해 식량산업 5개년(2019~2023) 종합계획을 수립해 쌀 경쟁력제고 및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중심의 식량자원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9억원인원을 투자해 시설장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옥구농협에서는 옥구·옥서 농민들과 쥐리를 생산해 지역화하고 도시민들에 건강하고 다양한 식량작물 공급에 심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식량산업분야 핵심과제인 지역농협 RPC 및 DSC를 통합해 공동법인을 설립하고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한 일관된 마케팅 전략으로 생산량 대비 70% 이상의 과잉 공급되는 쌀을 수도권 등에 공급하는 새로운 판매를 모색하고 있다.

매월석 시 농기센터소장은 "민·관이 협치해 시민들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정책들을 군산시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시민들의 식생활 교육 및 소비자 조직화를 통해 2조7천억원이 넘는 군산시 먹거리 경제시장에 지역농축수산인 및 지역기공업체들이 생산한 먹거리로 지역화를 이루어 지역경제 전반 파급은 물론,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